

“투표로 도민의 힘 보여줘야”

김윤덕 의원, “尹·安야합에 맞서 투표장 찾아 달라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대변환 이룰 것”



김윤덕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전주 갑)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오전 사전투표를 하고 “윤석열의 정치공화국, 정치 야합을 통한 국민 기반행위 저지를 위해 전북 도민 모두가 투표에 통해 도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대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화 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는 전북 도민의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 윤석열과 안철수의 정치 야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3중 소외를 당하고 있는 전북의 아픔을 보듬고, 지방분권과 전북발전의 청사진을 구상해 왔고,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며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라는 전북 발전 공약을 시작으로 14개 시·군에 이르기까지 탄탄한 전북발전 공약을 통해 전북의 대변환을 이룰 것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덧붙여 “한하무인 윤석열과 국민을 기반한 안철수의 정치 야합



강원·경북 산불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를 방문,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국가와 전북발전 위한 열망 표로서 보여달라”

김윤덕 의원, 전주 갑 시·도의원 출마 예정자들과
1만1403인 이재명 대선 후보 릴레이 지지 호소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전주 갑) 국회의원은 5일과 6일 전주 갑 시의원 출마예정자와 함께하는 ‘1만1403인 이재명 릴레이 지지선언’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검찰공화국화, 지방소멸화 저지를 위한 도민의 한 표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화 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는 전북 도민의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 윤석열과 안철수의 정치 야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과 전북 발전의 열망을 표로서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주 갑 시의원 출마가 중점이 돼 한 표라도 더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보태면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는 완수될 것이다”고 밝혔다.

“신속 복구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문 대통령, 강원·경북 산불피해 현장 방문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신속 복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직접 위로했다. 울진국민체육센터 등 16개 대피소에 현재 600여 명의 이재민이 대피해 있다. 이곳 대피소에도 70개에 가까운 재난구호센터가 설치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신속 복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직접 위로했다. 울진국민체육센터 등 16개 대피소에 현재 600여 명의 이재민이 대피해 있다. 이곳 대피소에도 70개에 가까운 재난구호센터가 설치돼 있다.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는 나라”

도내 한부모 가정 30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전북지역 한부모 가정 300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제20대 대선을 5일 앞두고, 전북지역 한부모 가정 300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한부모가정 지원위원회(위원장 박준필)에 따르면, 전북 한부모가정 300인이 지난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임종성 국회의원(경기 광주 시울), 한부모가정지원위원회 박준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부모가족 300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식’을 가졌다.

한부모가정 지원위원회(위원장 박준필)에 따르면, 전북 한부모가정 300인이 지난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제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신속 복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직접 위로했다. 울진국민체육센터 등 16개 대피소에 현재 600여 명의 이재민이 대피해 있다. 이곳 대피소에도 70개에 가까운 재난구호센터가 설치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신속 복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직접 위로했다. 울진국민체육센터 등 16개 대피소에 현재 600여 명의 이재민이 대피해 있다. 이곳 대피소에도 70개에 가까운 재난구호센터가 설치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신속 복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직접 위로했다. 울진국민체육센터 등 16개 대피소에 현재 600여 명의 이재민이 대피해 있다. 이곳 대피소에도 70개에 가까운 재난구호센터가 설치돼 있다.

어촌소멸 위기 극복 수산업 경쟁력 강화 ‘맞손’

국힘 정운천 의원-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연대 협약 맺고 노력키로

국회의원 선대본부 정책본부 농어업생발전위원회 정운천 위원장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성호)는 지난 4일 국회의원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실현을 위한 정책연대 협약을 맺었다.



국회의원 선대본부 정책본부 농어업생발전위원회 정운천 위원장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4일 국회의원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실현을 위한 정책연대 협약을 맺었다.

정운천 위원장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어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관계자들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정운천 위원장은 “국회와 수산업, 어촌을 위한 정책연대 협약을 맺고,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관계자들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정운천 위원장은 “국회와 수산업, 어촌을 위한 정책연대 협약을 맺고,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관계자들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조지훈 “역대 최고치 사전투표율, 시민들의 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승리를 위해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조지훈 전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에 대해 시민들의 힘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정엽 “9일 본투표에도 적극 동참해달라”



임정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단장은 시민들의 사전투표 참여 열기를 높게 평가하고 오는 9일 본 투표에도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임정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단장은 “이제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신속 복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정엽 단장은 “대선 막판에 이뤄진 야합의 밀실야합은 무능한 후보와 배신한 후보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하고, “나를 위해, 전북과 전주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을 반드시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